

# 가정간호와 요양원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김은영(서울대 국민보건환경연구소)

본 연구는 최근 노인들을 위하여 새로이 도입·보급되고 있는 가정간호와 요양원 등의 장기요양서비스가 대상자의 간호의존도에 따라서 적절히 이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실시되었다. 분석을 위하여 Anderson의 의료이용행태 모형을 적용하였고, 연구대상 기관은 협조가능한 가정간호사업소 2곳과 유료요양원 4곳을 선정하였다. 각 기관에서 제 1 진단명이 뇌졸중인 자를 전수 조사하였는데, 총 연구대상자는 99명으로 가정간호 49명, 요양원 50명이었다. 대상자의 기능수준은 장기요양자 기능상태평가도구(RAI ; Resident Assessment Instrument)로 측정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AS Win8.0를 이용하여 Chi-square test와 t-test, 판별분석(Discrimina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체적 기능수준을 나타내는 ADL 점수는 가정간호 환자군이 17.25점이고, 요양원 환자군이 10.04점으로 가정간호 환자군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9.05$ ,  $p<.001$ ). 인지적 기능수준을 나타내는 CPS 점수는 가정간호 환자군이 5.45점, 요양원 환자군이 2.59점으로, 가정간호 환자군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7.72$ ,  $p<.001$ ).

2. 질병 이환기간은 가정간호 3.35년, 요양원 4.6년으로 요양원 거주 환자가 더 길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만성질환수는 가정간호 2.45개, 요양원 1.12개로 가정간호 환자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t=4.23$ ,  $p<.001$ ).

3. 욕창, 폐렴, 요도감염 등 합병증 개수는 가정간호 1.14개, 요양원 0.22개로 가정간호 환자군에서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t=6.63$ ,  $p<.001$ ). 현재 이용하고 있는 튜브의 개수는 가정간호 0.55개, 요양원 0.06개로 가정간호가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t=6.22$ ,  $p<.001$ ).

4. 가정간호와 요양원 두 집단의 소속을 예측할 수 있는 변수로 소인성 요인, 가능성 요인, 필요 요인 등을 이용하여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만들어진 판별 함수(discriminant function)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였다(Wilks' Lambda=0.34,  $p<.001$ ). 가정간호와 요양원 두 집단을 다르게 예측하는 변수는 결혼상태, ADL, CPS, 질환수, 합병증수, 튜브수 등이었다. 즉 기혼인 경우, ADL이 나쁜 경우, 인지적 기능상태가 나쁜 경우, 질환이 많은 경우, 합병증이 많은 경우, 튜브를 많이 가지고 있는 환자의 경우 요양원 보다 가정간호를 이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상자의 기능상태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의 이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유형별 대상자 선정기준과 비용지불체계의 개발이 필요함을 제안할 수 있다.